

한문소설 속 성의 윤리와 정의 개념의 모순*

윤채근**

목 차

1. 서론
2. 윤리와 정의, 혹은 주체와 사회
3. 『金現感虎』의 사례 : 성의 윤리화와 정의의 불가능성
4. 『布衣交集』의 사례 : 사랑의 윤리와 정의의 불가능성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정의 담론의 기원에 윤리적 모순이 있다는 전제하에 한문소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회가 만든 사법적 정의와 주체의 윤리적 선택이 일치하는 것은 인류문명의 궁극적 목표지만 아직 불가능하며,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다양한 윤리적, 문학적 담론들이 여전히 생성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 모순의 빈틈에서 산출된 대표적인 문학 현상이 사랑과 욕망의 서사다.

사랑과 욕망의 서사는 자연에 속한 야생의 욕망을 인간화시켜 윤리로 정립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하는데 이를 대표하는 작품이 『金現感虎』다. 그런데 이 윤리화 과정은 ‘利物’로 상징될 정의의 원리를 위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바,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호녀의 희생’이다. 여성을 야만의 잔여로 간주하려는 태도로부터 유래한 이 희생의 서사는 훗날 『布衣交集』 단계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정체성 주장을 담은 사랑의 서사로 발전하게 된다.

사랑이 인류의 시발점을 상징한다고 할 때, 이를 정의의 관점에서 재조정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재구성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인류의 구현으로서 정의를 다시 입법화하는 것은 단지 ‘利物’에 대한 사법적 조정의 수준에서 이뤄질 사안이 아니

* 이 연구는 2019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교수 / E-mail : zoongsoo@hanmail.net

다. 그것은 성과 사랑에 대한 인류의 윤리적 태도를 근본적으로 반성하는 차원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주제어: 성, 사랑, 윤리, 정의, 사법, 야생, 문명, 욕망, 주체, 사회

1. 서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어느 가족>엔 혈연과 무관한 기이한 대안 가족이 등장한다. 그들은 살인 전과가 있는 줌도독과 그의 동거녀, 그들이 우연히 등지를 튼 집의 노파, 줌도독 커플이 길에서 데려온 아이들 등등이다. 이들은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하고 집주인 노파가 죽자 그녀를 안방 바닥에 매장한 채 집을 차지해 살기까지 한다. 그런데 줌도독 커플이 체포돼 이들 전체가 공권력에 노출되자마자 매우 엉성하고 반사회적으로 느껴지던 그들이야말로 윤리적 가족으로 보이고, 차가운 법과 정의의 논리만을 들이대는 공권력이 폭력적 집단으로 비치기 시작한다. 과연 어느 측이 진짜 정의로운 걸까?¹⁾

사마천은 『백이숙제열전』에서 선과 악이 그에 합당한 보상과 징치에 처해지지 않는 불의한 현실을 애석해하며 윤리의 근저라 할 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탄한다.

나는 이 문제가 몹시 의심스럽나니 혹시 천도라고 하는 게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²⁾

1) 송화선 기자(2018), 422~433면.

2) 司馬遷, 『史記』, “余甚惑焉, 儼所謂天道, 是邪非邪?”

천도가 그릇되었거나 아예 존재하지조차 않는다면 윤리의 근거가 무너지는 셈인데, 그렇다면 인류는 무엇으로 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 사마천의 대답은 역사가의 포편을 통한 기억의 보상 혹은 보복인데 이러한 역사가 개인의 윤리적 판단이 항상 정의로울 수 있을까?

정의 개념의 정체가 항상 회의에 부쳐지고 간혹 공리적 기준을 통해 그 위상이 소극적으로 후퇴되는 데에는 이 개념 자체가 떠안고 있는 근원적 모호성이 놓여 있다. 즉 정의란 사회적 합의를 전제하므로 동시대 역사 환경에 따라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권력 소유의 주체가 누구냐에 의해 합의가 변질될 우려 또한 있다. 때문에 정의는 사법 제도를 통해 법률로 구체화되어 비인격적 객관성의 형태로 고정되기 마련이다.

문제는 사법적 정의로 상징될 객관적 정의의 원리가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들을 모두 소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어느 가족>을 비롯해 고레에다 월드에 출현하는 인물들의 윤리적 고민이 정의의 관점에서선 결코 해소시킬 수 없는 것들이란 점, 그리고 부정의한 세계에 침묵하는 천도를 대신해 사마천이 빼들 ‘靑史’라는 같이 복잡한 인물 갈등에서 빚어지는 윤리적 난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윤리란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며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 요구되는 본질적인 구성요건에 대한 탐색의 결과다. 따라서 정의에 위배된 죄는 속죄 가능하지만 윤리를 저버린 반인륜 범죄는 속죄가 불가능하다. 이 지점이 자연과 문명 사이의 크리티컬한 경계점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연(야생)에서 문명(사회)으로 넘어가는 문턱인 윤리의 차원에서 새로운 갈등이 빚어질 때마다 그로부터 논리적 자양분을 얻어 성립된 사법적 정의의 영역에도 혼란이 발생한다고 보는 건 어떨까?

일견 변경 불가능해 보이는 윤리의 철칙들이 순간적으로 요동치면 정의의 영역이 이를 받아 순발력 있게 반응해야 하지만 실제 사회는 그런 변화

에 둔감하여 윤리 영역과 정의 영역 사이에 괴리가 빚어지게 된다. 예컨대 좀도둑질 외에는 달리 생존수단이 없는 소외된 아웃사이드들이 구성한 대안가족은 혈연이라는 인류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지만 사법 제도로 상징될 정의 영역은 이 새로운 딜레마를 부정하거나 먼 미래의 문제로 지체시킨다. 이러한 양 영역의 시간 지체 현상은 무수한 정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그 배경엔 결국 문명이 숙명처럼 떠안아야 할 윤리적 딜레마가 놓여 있는 것이다.

윤리적 딜레마의 본질은 무엇일까? 욕망(자연)을 문명화하는 과정이 윤리화 과정이라면 이 윤리화 과정이란 인간의 탄생 과정 자체이기도 할 텐데, 이는 결국 욕망을 문명으로 해석해 들이는 작업에 변경이 발생하면 ‘인간’ 개념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변경은 왜 지속적으로 발생할까? 욕망이 문명에 의해 완전히 해석되어 극복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원적 욕망인 성욕은 완벽히 문명화되어 윤리 범주로 포섭되지 못하고 인류를 끝없이 자연의 영역, 혹은 본능의 영역으로 회귀시킨다. 이 피드백 작용 또는 윤리의 욕망으로의 역류 작용 탓에 욕망은 반복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새로운 딜레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딜레마가 정의의 영역과 충돌하는 현상이야말로 개인과 사회, 자연과 문명, 윤리와 법이 끝없이 갈등을 빚게 되는 원인이다.³⁾

여기서 우리 주제인 성과 사랑의 문제로 논의를 좁혀보자. 자연의 번식

3) 욕망에 의한 윤리적 갈등이 문명에 의해 완전히 정복되었다는 논리는 따라서 불가능하다. 예컨대 양명학에서 주장하는 ‘욕망 긍정’은 일부 극단적 양명좌파를 제외하면 ‘욕망이라는 준엄한 현실에 대한 솔직한 인정’을 의미한다. 이는 욕망에 대한 자유로운 허용과 자율성 획득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대한 더욱 효율적인 절제와 통제를 전제하는 것이다. 즉 욕망의 존재를 인식의 어둠 속에 은폐하려다 오히려 윤리의 가시권 밖으로 놓치곤 했던 주자학적 위선에 대한 도전이었다.

본능에서 유래한 성욕은 윤리화되면서 문명 안으로 수렴된다. 이런 성의 윤리화 과정이 사랑이라는 현상의 본질이다. 하지만 성욕은 윤리 세계 안으로 주기적으로 회귀하며 문명을 교란시키는데, 이에 따라 성욕에 대한 재윤리화 작업도 요구되고 당연히 ‘인간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윤리적 질문 역시 다시 던져지게 된다. 그렇다면 사랑이 문체시될 때마다 인간도 문체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동시대 정의의 규범 영역에 동요를 일으킴으로써 ‘주체의 사랑의 윤리 대 사회의 사법적 정의’ 사이의 종료되지 않을 모순과 갈등을 부추긴다. 이것이 대부분의 소설이 드러내는 서사 갈등의 핵심을 상징하는데, 소설의 윤리적 기능과 역할 역시 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2. 윤리와 정의, 혹은 주체와 사회

갑골문에 나타나는 ‘義’ 자는 아름다운 장식물을 단 의장용 창을 상형하고 있다.⁴⁾ 밖으로 표현된 위엄과 권위를 뜻하던 이 글자가 어느 순간 사람의 품덕이나 그에 기반한 적절한 행동을 지칭하게 됐는지는 분명치 않다.⁵⁾ 하지만 『서경』이나 『효경』을 보면 적어도 秦漢代 이전에 이미 그러한 뜻으로 정착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왕이 말했다. “너는 이 법을 준수하여 일해야 하나니 모든 형벌을 은나라

4) 許進雄(2013), 300면.

5) 『說文』, “義, 己之威儀也.” 여기에 대한 단옥재 주는 ‘威儀出於己, 故從我.’인데 아래의 성부 ‘我’ 자의 의미를 살린 것으로 정확한 문자학적 해석은 아니다(『大漢華辭典』九, 75면). 불명료한 창의를 형성 원리로 풀려한 許慎의 의도를 논리적으로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

법에 따라라. (죄지는 백성들에게) 바른 형과 바른 죽음을 내리되 너 봉 마음 대로 하지 말라.”⁶⁾

成王이 康叔에게 분봉하면서 은나라 법률을 존중하여 형벌을 바르게 시행하라고 당부하는 대목이다. 형벌의 자의적 집행이 초래할 민심 이반을 우려한 이 담화의 ‘義’는 ‘宜’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따라서 법률제도와 같은 객관화된 준칙을 염두에 둔 표현임이 분명하다. 이는 주체 내면의 윤리성을 전제하지만 그것을 사회적 제도로 제한하려 한다는 점에서 사법적 권위를 획득하며, 성왕이 강숙에게 제시한 언명의 정치적 의도 또한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런데 주체의 윤리성을 상징하는 문자 ‘善’은 그 본래 창의 과정과 무관하게 후한 무렵이면 ‘義’ 그리고 ‘美’자와 밀접히 연관되며 서로 가족유사성을 띠게 된 것 같다.⁷⁾ 물론 실제 이 세 글자의 창 과정은 전혀 상이하다. 예컨대 갑골문자 ‘美’는 어른의 머리에 한 아름다운 머리장식을 뜻했다.⁸⁾ 그럼에도 羊을 매개로 한 세 글자의 형상적 공통성 덕분에 우연한 의미론적 결합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이 현상이 비록 문자학적으로는 오류이지만 개념의 발전 과정에선 분명한 계보적 친연성을 구성한다는 점이다.

결국 ‘의로움’이란 윤리적 선이 밖으로 바르게 드러난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윤리의 차원과 사법의 차원, 주체의 내면과 사회

6) 『尙書』(『十三經注疏』一), 『康誥』, 203면. “王曰, 汝陳時臬事, 罰蔽殷彝. 用其義刑義殺, 勿庸以次汝封.”

7) ‘善’의 창 의는 羊과 두 개의 言(관악기 모양의 상형)인데 『說文解字』에서는 ‘義와 美와 같은 뜻(此與義美同意)’이라고 쓰고 있다. 허진웅(2013), 435면.

8) 허진웅(2013), 453면. 물론 허신은 여기서도 ‘美와 善은 같은 의미(美與善同意)’라고 강조하고 있다.

의 공공성 영역이 모순 없이 일치함을 전제한 셈이다. 상식적으로 당연해 보이는 이 전제는 그러나 역사 현실 속에선 모순을 피할 수 없고 모든 윤리적 난제의 원인이 된다. 개인의 윤리적 판단이 반드시 사회적, 사법적 영역에서도 바르리라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의 영역과 정의의 영역을 섬세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저 효란 하늘의 항상됨이요 땅이 만물을 이롭게 함이니라.”⁹⁾

『효경』의 이 부분에 대한 주석에서 ‘義’를 ‘利物’로 해석했다는 점은 ‘義’ 개념이 지닌 타자와의 관계성을 예리하게 드러낸다. 윤리적 선행은 주체 내면의 자기 결단이지만 공공적 실천과 결부된 정의는 반드시 타자(‘物’)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빚을 결과(‘利’)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윤리적으로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이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반대로 윤리적 동기 없는 행동이 사회에 정의를 실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것이 윤리와 정의의 상대성이 빚는 모순이며 모든 윤리적, 사법적 딜레마의 원인이기도 하다. 여기서 『육신전』의 사례를 살펴보자.

충성스런 분노는 흰 해를 꿰뚫고 의로운 기상은 가을서리보다 차가왔나니
후대의 신하들로 하여금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군을 모시는 의로써 천금 같은 생명을 깃털처럼 여겨 인을 이루고 의를 취했음을 알게 했다.¹⁰⁾

9) 『孝經』(『十三經注疏』八), 『三才』, 28면. “子曰, 夫孝, 天之經也, 地之義也.” 주에는 “經常也, 利物爲義”라고 되어 있다.

10) 南孝溫, 『六臣傳』. “忠憤貫乎白日, 義氣凜乎秋霜, 使百世之爲人臣者, 知所以一心事君之義, 千金一毛, 成仁取義.”

남효온의 윤리적 관점은 사육신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이념적 동일화에 근거하는데, 그로 인해 그는 반정 모의를 仁하며 동시에 義하다고 단언했다. 달리 말하면 세조와 그의 협력자들은 不仁하며 不義하다는 뜻도 된다. 하지만 왜 단종은 되고 수양은 안 되는 것일까?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이 통치함으로써 과연 세상에 불의가 초래됐던 것일까? 그의 찬위가 윤리적으로 불인할 수는 있을지언정 역사적으로 의롭지 못하다고 단언할 근거는 무엇인가? 그렇게 보자면 인류 역사 전체가 불의의 역사이며 네안테르탈인을 멸종시키고 생존한 호모 사피엔스 중 자체가 불의의 산물이 아닐까?

남효온이 사육신이 의로웠다는 근거로 내세운 것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군을 모셨다는 점인데, 이런 忠義 논리는 역사적으로 무수히 악용되고 왜곡된 통속적 의리 관념과 논리적으로 구분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의란 그때마다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공공적 준칙에 가까운 것이며 궁극적으로 공익 증진(利物)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윤리는 이와 달리 역사적 상황 논리를 초월한 인간의 가치를 문제 삼음으로써 공공의 이익이라는 현실적, 공리적 이해관계를 넘어선다.¹¹⁾

우리는 여기서 윤리의 절대성과 정의의 상대성이라는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양자 모두 인류 문명의 합의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성의 산물들이지만 정의가 윤리의 토대 위에 수립된 사후적 제도화의 결과물로 여겨지는 반면, 윤리는 그 근거가 그것 자체인 불가역적 명제로, 다시 말해 선형적

11) 주체의 윤리적 결단과 사회적 공리에 기반한 사법적 정의가 서로 모순을 빚는 현상을 대표하는 작품이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안티고네의 공범에 대한 도전을 해석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헤겔은 (오빠의 시신을 매장하려는) 안티고네의 완고한 주장을 혈연에 기초한 친족세계가 사회적 공공성의 세계, 즉 사법의 세계로 넘어가는 경계점의 상징으로 간주했다. 이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라캉에게 계승되는데 이에 대한 윤리적 쟁점들을 주디스 버틀러가 요약한 바 있다. 주디스 버틀러 저, 조현순 역(2005), 18~52면.

전제조건으로 제시된다. 예컨대 칸트의 도덕론이 그러했듯이 윤리적 명제는 종종 종교적 선포라는 반증 불가능한 신탁 형식으로 언명된다. 이것이 윤리적 판단이 밀도 끝도 없는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열정과 결부되는 이유이다.¹²⁾

예컨대 모세의 십계명이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혁명론은 주체의 쾌와 불쾌에 관한 공리적 판단에 입각한 단순한 정의의 논리가 아니라 윤리적 열정에 의해 추동되었다. 이 윤리적 열정은 인간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신념에 기반하여 기존의 정의 관념을 파괴하고 새로운 정의의 기준을 창조하려 한다. 이처럼 윤리의 근거가 새롭게 문제시된다는 것은 새로운 혁명적 상황이 도래했음을 뜻한다. 그리고 해당 윤리적 변화가 정의의 양상마저 수정하고 사회에 의해 추인되면 완전히 다른 정의의 기준을 지닌 다른 세계가 개시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윤리적 판단의 절대성은 윤리의 기준이 정의의 경우처럼 사법적으로 고정되지 못하기에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¹³⁾ 욕망과 문화의 경계 위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윤리 영역은 인간성의 한계가 시험되는 ‘무른’ 지역이기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치열하게 제기되는 전위적 지역이며, 동시에 문명의 외피 속에 감춰진 연약한 인간성의 진상

12) ‘행[행복] 또는 화[재앙]는 항상 쾌적 불쾌적, 쾌락 또는 고통이라고 하는, 우리의 상태에 대한 관계를 의미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만약 우리가, 행 또는 화를 기준삼아 어떤 객관을 요구하거나 혐기(嫌忌)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객관이 우리의 감성과 쾌·불쾌의 감정에 관계되는 한에 있어서만 욕구하고 혐기하는 것이 된다. 이것에 반해 선 또는 악은, 의지가 이성의 법칙에 의해서 규정되어 무언가 어떤 것을 의지의 객관으로 삼는 한에 있어서의, 이 의지에 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 때문에 의지는, [의지의] 대상이나 그 대상의 표상에 의해서 직접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규칙을 자신의 행위(이것에 따라 [의지의] 대상이 실현된다)의 동인으로 삼는 능력이다.(밑줄은 필자)’ 임마누엘 칸트 저, 강태정 역(1991), 97~98면.

13) 알렌카 주판치치 저, 이성민 역(2004), 357~362면.

이 발가벗겨지고 취조되는 위태로운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3. 「金現感虎」의 사례 : 성의 윤리화와 정의의 불가능성

사랑이 욕망의 윤리화, 혹은 자연의 문화화 과정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金現感虎」다.¹⁴⁾ 후대 애정 소설들이 세련된 문학적 장치 속에 감추게 될 이 문제가 이 소박한 작품 안에서 우의를 통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우선 주인공 남녀가 만나 성관계를 맺기 직전의 상황을 보자.

김현이라는 젊은이가 홀로 밤 깊도록 쉼 없이 탑을 돌았는데, 한 처녀가 염 불하며 따라 둘다 돌이 눈이 맞았다. 탑돌이를 마친 김현은 그녀를 으스스한 곳으로 끌고 가 통교했다.¹⁵⁾

이 작품의 설화적 한계로도 볼 수 있을 이 간절한 상황 묘사는 김현과 처녀 사이의 관계가 우발적 통정에서 시작됐음을 ‘사랑의 修辭’ 없이 보여 준다.¹⁶⁾ 둘은 탑돌이라는 종교적 행사와 전혀 무관하게 그저 눈이 맞아 절에서 육체관계를 맺는다. 또한 두 남녀의 만남 배후에 종교적 가호나 필연

14) 이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성욕의 문화적 규범화’를 주제로 한 초기 소설 모델이기 때문이다. 「布衣交集」을 병치해 비교한 것은 그것이 이 모델의 발전 형태라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15) 장효현 외(2007), 『校勘本 韓國漢文小說 傳奇小說』, 「金現感虎」, 20면. “有郎君金現者, 夜深獨逸不息, 有一處女, 念佛隨逸, 相感而目送之. 逸畢, 引入屏處, 通焉.”

16) 이 작품보다 압축적인 「調信」조차 “屢就洛山大悲前, 潛祈得幸, 方數年間”에서 보듯 남녀의 욕망이 인륜적 사랑으로 옹터가는 시간적 진행 과정을 세밀히 설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장효현 외(2007), 13면.

으로서의 前定이 있으리라 짐작되도록 배치된 표현이 일체 없다.¹⁷⁾ 그러므로 둘을 엮어준 매개는 불교에서 가장 비속하게 여기는 한낱 성욕이다.

오직 우발적 욕망으로만 엮힌 둘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성교 이후 여자의 행동이다. 그녀는 김현과 더 이상의 인연을 맺기를 거부하며 따라오는 상대를 계속 뿌리친다.¹⁸⁾ 왜 그럴까? 김현의 존재가 그녀에겐 잠재적 재앙이며 그녀 역시 그에게 그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모순 관계는 그녀의 할머니의 발언을 통해 상징적으로 언명된다.

비록 좋은 일이지만 없느니만 못했구나. 허나 이미 지난 일을 이제 어찌겠느냐?¹⁹⁾

남녀가 욕망을 해소했으니 좋은 일이지만 종이 다른 존재들끼리의 통교는 윤리의 선을 넘은 위험한 일이므로 없었어야 할 일이었다는 뜻이다. 이런 윤리 의식은 김현의 발언을 통해 이후 재차 언급되고 있다.

사람이 사람과 사귀는 것은 인륜의 당연한 일이지만 종을 달리해 사귀는 것은 통상의 일은 아닐 듯하다.²⁰⁾

윤리적으로 통상적이지 않은 일, 혹은 윤리를 벗어난 행동이란 이중 사

17) 그러한 짐작은 이 작품의 전승에 기여한 『三國遺事』라는 책의 종교적 배경을 고려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 작품은 비록 실전됐을망정 『殊異傳』에 일차 귀속되어야 하며 그 사후적 재배열로부터 발생한 추가적 의미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할 사항이다.

18) “女將還，現從之，女辭拒而強隨之。” 이 표현 때문에 둘의 만남이 호녀가 한 기도, 즉 배필을 원하는 탐돌이에 대한 부처의 즉각적 응보일 것이라는 추정이 봉쇄된다.

19) “雖好事不如無也，然遂事不可諫也。”

20) “人交人，彝倫之道，異類而交，蓋非常也。”

이의 성교, 김현 입장에서는 바로 獸姦이다. 수간은 인류가 자연을 벗어나 윤리화되며 극복했던 문명 이전의 야만행위인데, 이와 유사한 야만적 욕망에는 근친상간에 대한 욕망도 있다. 근친상간은 수간과 양상은 다르나 짐승처럼 하는 성관계이기에 수간처럼 윤리 영역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고귀한 혈통은 순혈 계보를 유지하기 위해 더러 근친혼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일반인들과 자신들을 특권적으로 분리시킨다. 이는 직계 사이의 수직적 성관계만 아니라면 근친상간이 선별적으로 문명세계 안으로 포섭됐다는 명확한 증거이며, 나아가 직계 가족 사이의 수직적 성관계가 인류 문명의 최종단계까지 유지된 ‘마지막 야만’이었다는 간접 증거이기도 하다.

결국 수간은 근친상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문명에 대한 근원적 위반 행위이며 그런 견지에서선 동종살해에 맞먹는 비윤리적 행동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김현과 호녀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 그에 마땅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것이 다음과 같은 하늘의 외침이 등장하는 서사적 이유이다.

너희들이 생물들의 생명 해치기를 좋아함이 심하니 마땅히 한 마리를 죽여 징벌하리라.²¹⁾

하늘의 외침은 마치 서라벌에서 벌어진 虎患에 대한 일반적 징벌인 양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그 서사적 등장 시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호녀를 겨냥하고 있다. 즉 이 징벌의 음성은 호녀가 죽음을 선택할 절묘한 기회를 부여하는 역할을 떠맡고 있다. 이에 대한 호녀의 선택은 전형적인 희생자의 儀式을 보여준다.

21) “爾輩嗜害物命尤多，宜誅一以徵惡。”

지금 첩이 일찍 죽는 것은 아마도 천명일 것이지만, 또한 저의 소원이며 낭군님께 경사이고 우리 족속에겐 복이며 서라벌 사람들에겐 기쁨일 겁니다. 하나가 죽어 다섯 이익이 갖춰집니다.²²⁾

호녀가 위와 같은 희생을 결심한 배후엔 김현과의 금지된 통교가 있다.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할 이익 가운데 천명을 제외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자신의 소원’과 ‘낭군이 벼슬을 얻는 경사’임을 볼 때 이는 분명하다.²³⁾ 즉 그녀는 자신과 김현이 저지른 비윤리의 죄를 홀로 떠안는 대신 그 희생의 의식을 거쳐 인류의 반열에, 혹은 유사인류의 위치에 올라서는 것이다. 천명을 깨달아 죽음을 선택하는 존재, 남자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존재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여성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성행위를 한낱 욕망의 해소가 아니라 그것의 인륜화, 즉 사랑 [혼인]에 견주는 장면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낭군님에게 있어 천첩은 비록 속한 중은 다르다 하겠지만 하룻밤의 즐거움을 함께 나눴으니 그 의리는 부부만큼이나 소중합니다.²⁴⁾

호녀는 자신을 희생하는 통과의례를 거치면서야 스스로를 윤리적 존재로 주장할 수 있게 되며 김현과 맺었던 짐승으로서의 성관계도 문명적 행위로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에 도달해서야 자신의 윤리적 속죄를 통해 상대에게 ‘의리’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그렇다면 그녀가 소원하던 바대로 상대와의 부부의 의리 혹은 성의 윤리는 완성됐는가? 그

22) “今妾之壽夭，蓋天命也，亦吾願也，郎君之慶也，予族之福也，國人之喜也，一死而五利備。”

23) 나머지는 그녀의 숭고한 희생이 낳을 부대 이익에 가깝다.

24) “賤妾之於郎君，雖曰非類，得倍一夕之歡，義重結褵之好。”

너가 김현에게 인간에 버금가는 윤리적 존재로 인정받는다든 접에선 그러하다. 예컨대 김현은 호녀가 자신을 위해 죽음을 선택하려하자 이렇게 말한다.

이전에 그대와 다정한 관계를 맺은 것은 정녕 하늘이 준 큰 행운이었는데 어찌 차마 짝의 죽음을 팔아 한 생에서나 누릴 작록을 바랄 수 있으랴?²⁵⁾

물론 이렇게 멋진 말을 한 김현은 결국엔 호녀의 부탁을 묵묵히 수행해 한 생의 작록을 차지하게 된다. 그가 호녀를 인간화된 존재로서 존중해 베푼 보응은 그녀의 혼을 위해 원찰을 지어 명복을 빌어주고 마지막까지 그녀를 기억해 기록으로 남겼다는 사실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은 그녀가 기꺼이 소멸[희생]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연의 어두운 욕망을 우의했던 호랑이 처녀는 김현의 삶에서 스스로 사라짐으로써 김현의 수치스런 기억, 즉 성공 뒤에 은폐된 기이한 과거, 혹은 수간으로 상징될 윤리 이전의 욕망을 미담으로 윤색해 제거해 준 것이다.

윤리화되지 못하는 성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이며 끝내 문명의 근거를 위협한다. 때문에 성은 윤리적으로 흡수되어 인간화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잔존하게 될 욕망의 동력들은 은폐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 김현과 호랑이 처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이겠는가? 평범한 남녀들 역시 각자 자연적 욕망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야만성을 회피할 수 없으며 그것에 정면으로 직면해야 하며 수치를 은유로 변조해 내야 한다. 그로 인해 성교는 배변처럼 인간 실존에 항존하면서도 마치 벌어지지 않는 일인 것처럼 가려져야 하고 문화의 물감으로 더 짙게 채색되어야 한다.

25) “旣得從容，固多天幸，何可忍賣於仇儷之死，僥倖一世之爵祿乎？”

호녀는 욕망이 윤리화되는 과정에서 거세된 자연적 욕망, 그리고 이러한 욕망의 거세 또는 배제 없이는 인간적 사랑이 유지될 수 없음을 상징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문명이 만들어낸 사랑이라는 윤리가 인간들 자신의 불안정한 욕망을 어딘가에 몰래 배설하고 은폐하며 영똥한 곳에 전가하면서야 존립된다는 사실을 은밀히 전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호녀가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사라진 이 이야기의 다른 가능성, 즉 남성들이 자신에게 결핍된 윤리성을 자신들보다 더 윤리적 결핍을 겪고 있다고 가정되는 존재에 의지해 책임을 회피하고, 나아가 그 존재들을 거리낌 없이 ‘가치 없는 자연’으로 다루는 상황을 고려해 보자. 그럴 때 호녀는 창녀이며 위안부이고 유태인이며 노예이고 아기를 생산할 때만 쓸모 있는 거대한 구멍이 된다.²⁶⁾

4. 「布衣交集」의 사례 : 사랑의 윤리와 정의의 불가능성

「김현감호」가 아직 자연에 속한 욕망이 인간화, 윤리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제와 거세, 즉 성적 정의의 불가능성²⁷⁾을 다뤘다면, 「포의교집」은 그 다음 과정, 즉 어엿한 문명적 존재가 다른 존재와 대등해지려는 과정에서 초래되는 정의의 불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이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성의 윤리화’ 대신 ‘사랑의 윤리화’라는 개념을 적용해 보았다.²⁸⁾

26) 이 구멍 속에 흑인과 아시아인처럼 유색 인종이 있다면 어찌할 것인가? 황색 인종은 그런 점에서 ‘구멍 뚫린 존재’가 아닌가? 결핍이라는 洞空 속에서 서구 문명의 시혜를 기다려야 했던 존재가 상징적 여성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그런 견지에서 여성은 정의의 불가능성을 명명하는 다른 이름이다.

27) ‘利物’의 공정한 적용 혹은 그 사법적 보장의 불능성(incapability)을 강조해 표현하기 위해 ‘불가능성’을 사용했다. 따라서 윤리 차원의 교란을 받지 않는 완벽한 정의의 실현이 아예 논리적으로 불가능(impossible)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불륜은 그 용어의 의미 그대로 사법적 정의 이전의 윤리 영역에서 빚어지는 사적 사건이다. 여러 상대와 교미하던 자연의 습성을 일부일처제라는 문화적 규약으로 제어하며 발생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지만 일부 문화권에선 이 윤리적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불륜은 정의의 영역이 개입하기 어려운 개인의 내밀한 성적 생활에서 일어나며 따라서 사회가 간섭하기에 너무 복잡한 변수들이 작용하기 십상이다. 더구나 이혼이 합법화된 마당에 사회가 개인의 성생활을 감시하기란 사법적 논리 내부에서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불륜 역시 ‘나는 어떤 인간인가?’ 혹은 ‘나는 문명적으로 온전한 인간인가?’와 같은 윤리적 자기 질문에 대한 특별한 응답 방식이 되며 동시에 이런 윤리적 질문 절차를 통해 자연적 욕망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되찾아오려는 실존의 실험이 된다. 즉 난잡한 난교가 아닌 이상 불륜을 초래하는 존재론적 기원은 일부일처제라는 정의의 영역 너머에 펼쳐진 윤리적 시련의 황무지로 자신을 내몰고 그 모호함을 견디며 ‘나라는 인간’을 다시 건져내 확인하려는 신원확인 작업인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불륜은, 적어도 조금씩은, 사법적 정의의 영역이 설명해줄 수 없는 자기 존재에 대한 근원적 물음에 기초해있으며 그것은 ‘나는 무엇인가?’라는 윤리적 질문과 긴밀히 잇닿아 있다.²⁹⁾

여주인공 초옥은 이상의 의미에서 매우 윤리적 존재인데, 그녀는 자신이

28) 성(욕)의 윤리화가 사랑이었다면 사랑을 재윤리화하는 과정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현대문명의 긴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금 복잡한 「포의교집」의 줄거리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본문에서는 생략한다. 김경미 외(2003), 129~211면.

29) 이처럼 우리 논의는 ‘성교하는 나는 아직 짐승으로 전락하지 않았으며 독립된 자율적 존재인가?’라는 주체로서의 윤리적 질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란 관점에서 우리 논의는 사랑의 담론을 외피로 걸치고는 있지만 기존 논의와 전혀 다른 존재론적 차원에 입론이 설정되어 있다. 이런 차이는 본문 전개를 통해 확인될 것인데 때문에 선행 논문들을 친절히 고찰하여 차이를 부각시키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한다.

세상에 던진 윤리적 질문을 강화하는 도중에 스스로 윤리적 선포자가 됨으로써 결국 호녀처럼 제도의 희생양이 되고 만다. 윤리적 존재가 왜 희생되어야 하는가? 초옥은 사법적 정의의 차원에선 바람난 유부녀에 불과하기에 그녀가 한 모든 행동은 상대 남성 이생의 풍류에 반응한 수동적 열정으로 격하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생은 초옥의 신원을 끝내 확인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남성이며 그녀의 열정이 윤리적 결의에서 유래했음을 깨닫지도 못한다.

초옥이 사랑을 다루는 윤리적 방식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그녀가 이생에게 꽃을 선물하며 자신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꽃이 궁궐에서 자라면 필경 공자나 왕손의 감상 대상이 될 것이며, 잘사는 동네에서 자라면 필시 이름난 벼슬아치들의 완상품이 될 것인데, 가난한 골목에서 피어난다면 반드시 촌아이들이나 목동들에게 베임을 당하겠지요. 똑같이 아름다운 꽃인데도 때론 귀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때론 시골 목동의 사랑을 받게 되니 이 어찌 자라난 땅이 달라서가 아니겠어요?³⁰⁾

초옥이 꽃을 꺾어 이생에게 내민 뜻은 꽃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았다. 그건 인간의 운명에 대한 비유였다. 꽃의 운명은 타고난 자품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어디에서 피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런 우발성은 세상의 모든 불공정성의 원인을 상징한다. 그렇다면 꽃은 초옥 자신을, 꽃이 태어난 자리는 자신이 태어난 처지에 대한 강렬한 자각을 의미할 것이다. 초옥의 이 대답 이전에 이생이 꽃의 의미를 미리 짐작하는 대목을 보자.

30) 장효현 외(2003), 『校勘本 韓國漢文小說 愛情世態小說』, 『布衣交集』, 689면. “生乎宮苑, 則必爲公子王孫之賞, 生乎戚里, 則必爲名公巨卿之娛, 生乎閭巷, 則必爲村童牧豎之折也. 同是芳香, 而或爲貴人之愛, 或爲村牧之愛, 豈非所生之地異耶?”

(그대가 꽃을 준 의미를) 내 어찌 모를까? 이 꽃은 절묘하고 빼어난 아름다움을 품고 있으니 규방 가까이에 있으면서 아름다운 여인이 즐겨 감상하는 바가 되었겠지. 그러나 아름다움은 오래 가지 못하니 가을바람에 시들 것 이야. 어찌 가련하지 않을까?³¹⁾

초옥은 꽃을 주며 꽃이 가련하다고 말하는데, 이생의 위의 대답은 그 가련함의 의미를 풀어내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생의 대답은 목표점을 잘못 잡고 있다. 그는 꽃 자체가 아니라 꽃의 아름다움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 건 초옥이 전하려던 뜻이 아니다. 초옥은 아름다움이 시들 것을 염려한 게 아니라 아름다움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스러지는 것을 염려한 것이다. 어떤 존재가 자신이 태어난 의미를 다 실현하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것, 그것은 한 인간이 무의미 상태로 삶을 마치는 것이므로 결국 살았으나 죽은 상태로 생을 연장하다 소멸하는 식물[꽃]인간의 삶을 비유한다. 모든 식물은 시들지만 제 소임을 다하고 사라진다면 덧없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 건 아름다움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꽃의 운명, 나아가 그 아름다움마저 제대로 대접받기 어려운 여자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초옥이 다른 것이 아닌 꽃을 비유의 대상으로 끌어들인 이상 꽃이 여자의 운명을 상징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초옥이 꽃을 비유로 끌어들인 것은 자신이 품은 보편적인 존재론적 의문을 이생에게 쉽게 전달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이생에게 가닿기를 바란 메시지의 핵심은 실은 남자와 여자를 초월해 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 조금 길게 인용해보겠다.

31) “吾豈不知乎? 此花稟得精秀之妙, 近於閨閣, 爲佳人之所愛賞, 然不久, 爲秋風所零, 豈非可憐哉?”

사람의 인생 역시 이와 같습니다. 서울 가까이에서 잘사는 사람들은 필경 등과하여 높은 신분은 얻을 것이니 어찌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서이겠습니까? 먼 시골에서 태어난 자는 필시 가난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 텐데 어찌 정성이 저들만 못해서이겠습니까? 여자들도 (그런 점에선 남자와) 마찬가지로인 겁니다. 사대부 반가에서 태어나면 우아한 숙녀가 될 것이지만 필부의 집에서 태어나면 가난한 아낙네가 되고 마는 거지요. 이 어찌 용모와 재주가 저들만 못해서이겠습니까? 처한 환경이 그리 만드는 것이지요. 까닭에 첩은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낭군님의 (과거 공부하는) 정성을 애석해했고 낭군님의 정성을 애석해하며 동시에 (저를 포함한) 여자라는 천한 신분의 운명을 애석해했습니다. 그러므로 꽃이 애석할 만하다면 낭군님도 애석해할 만한 분이 것이며 첩 또한 애석해할 만한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첩은 스스로를 애석히 여길 겨를이 없었으니 그건 낭군님으로 하여금 자신도 (첩과 같은 여자처럼) 애석히 여길 만한 처지에 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낭군님께서도 (제 남편을 포함한 다른 못난 남자들처럼) 자신이 애석해할 만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계시니 다시금 첩의 어찌할 수 없는 처지(같은 남자로서 충고해 줄 수 없는 여자로서의 답답한 처지)를 애석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꽃을 꺾어 바쳤습니다.³²⁾

언뜻 여자로서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듯한 초옥의 말은 실은 그 반대의 논리를 숨기고 있다. 그녀는 인간 삶 전체의 불공정한 운명을 탄식하고 있는데, 그 불공정한 운명 속에 자신과 이생은 동등하게 편입시켜 애석해한다. 그런데 서로의 운명이 각자의 방식으로 애석해할만한 처지임을 이생은 아직 모르고 있다. 누가 우월한가? 바로 초옥이다. 그녀는 여자로서

32) “人之生亦類是也。近於王都者，必登科成貴，豈才德之有勝哉？生乎遐鄉者，必貧賤迂闊，豈精誠之不逮哉？女子亦然，生乎士夫宅者，必爲閑雅之淑人，生乎匹夫家者，必爲糟糠之庸婦，豈貌德之不相及哉？使處地而然也。是以妾看此花之美，而惜郎君之誠，惜郎君之誠，而歎女子之賤也。故花可惜，而郎亦可惜，妾亦可惜也。妾不暇自惜，而欲使郎君亦可自惜，而郎君亦不可自惜，兼惜妾之不得可也。故折而獻之。”

서의 자신의 처지를 사례로 들어 삶 자체가 불공평함을 설파함으로써 이생의 분발을 촉구하게 된다.³³⁾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수준을 진즉 초월한 초옥은 적극적으로 이생의 자각을 주문하며 그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저 자신의 미덕을 먼저 발견해주려 하는 것이다. 이견-성을 초월했다는 상징적 의미에서-남자와 남자의 우정을 닮아 있지 않은가?

결국 초옥이 해석해낸 남녀 사이의 사랑이란 동등한 우정이며 그런 점에서 사법적 혼인의 예속으로부터 훨씬 벗어나 있다. 혼인의 굴레에서 벗어났기에 그녀는 이생에게 먼저 접근해 포의로서의 대등한 사귀음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³⁴⁾ 따라서 그녀에게 이생이란 존재는 불륜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과 똑같은 불리한 처지³⁵⁾에서 입신해보려는, 혹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려 분투하는 벗 또는 동지에 가깝다. 그렇다면 초옥이 주장하는 사랑의 윤리란 성의 차이를 넘어선 인류애, 혹은 인류적 義利였던 것이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롭게 돕는(‘利物’) 이러한 동료애적 의리를 이생은 마지막까지 이해하지 못한다.

초옥이 말을 마쳤는데 이생은 이미 그녀의 미모에 빠져있었던지라 그녀의 말 역시 (그녀의 미모처럼) 어여쁘게만 들렸으니 자기도 모르게 기꺼이 수긍하며 말했다.

“아가씨는 과연 여염집의 평범한 아낙은 아니었어. 이제 이 꽃을 우리 사이의 매파로 삼고 싶은데 어떠한가?”³⁶⁾

33) 초옥은 이생이 등과하여 자신의 능력을 공정하게 인정받기를 열망하며 남녀로서의 성관계는 매우 부차적인 것으로 제외하려고 한다. ‘저의 마음에는 문장 잘 하는 선비를 만나 밤낮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일생을 보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일이 크게 잘못 되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단을 만나려다 베를 만난 격이 되어 이렇게 영락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미 외(2003), 150면.

34)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다.

35) 이생은 충청도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과거를 준비하고 있는 소외된 한사다.

위의 이생의 말 속엔 초옥의 말뜻을 알아들은 흔적이 전혀 없다. 즉 초옥을 배려하는 듯한 그의 미사여구들 배후엔 항상 성욕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둘 사이의 우정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예컨대 남편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초옥과 단둘이 만난 날, 끝내 육체관계를 맺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자 이생은 이렇게 생각한다.

오늘밤 그녀를 마주해 응당 친밀해지긴 했지만 아무 짓도 못하고 보내버렸군. 내가 소심해서 그런 것인데 그녀에게 불만의 기색이 없었는지 모르겠어.³⁷⁾

위의 이생의 염려는 성관계를 바라보는 남녀의 본질적 차이를 드러낸다. 즉 여성에게 성관계는 상대와 보다 밀접한 인간적 교감을 시작하기 위한 수단인데 반해 남자에게 그것은 최종 목표 자체일 수 있다. 특히 초옥의 최대 관심사는 잘못된, 혹은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교정하려는 고독한 義士들끼리의 우정이었는데 이생은 초옥의 육체에만 탐닉하려 든다.³⁸⁾ 이 모순은 여성을 ‘포의의 사귀’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없는 남자 이생의 근원적 무능성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 작품이 슬픈 결말로 끝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럼에도 이생을 멋진 동지로 이해해보려는 초옥의 노력은 눈물

36) “言罷，生既美其色，又美其言，不覺欣然敬服曰，娘果非閭巷匹婦也，願娘從此始令此花作一媒婆，何如？”

37) “今夜相對，應有修好，而卽虛送。乃吾之拙，而娘能無懷慍之色耶？”

38) 당연히 동등한 우정을 요구하는 초옥의 거듭되는 메시지를 성욕으로 오판한다. 예컨대 초옥이 보낸 편지에 있는 ‘낭군께서는 제 얼굴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의 어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제게 무슨 복이 있기에 이 세상에서 백옥이나 자하 같은 군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그대를 따라 사귀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에 대해 이생은 ‘간밤을 그냥 지나보낸 것은 과연 용렬한 일이었구나.’라며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고 만다. 김경미 외(2003), 152~153면.

접기만 한데 처음으로 잠자리를 허락하며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침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음란함을 탐하거나 재물을 원해서가 아니고 낭군님 역시 주색이나 마구 밝히는 무리가 아니시지요. 뭐 꺼릴 게 있겠습니까? 원하옵건대 낭군님께서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가슴 안에만 꼭꼭 담아 두지는 마세요. 정욕을 풀지 못하면 필연코 병이 생길 것이고 병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아예 만나지 않았던 것만 못하겠지요.³⁹⁾

혼인 관계가 매춘과 다른 것은 남녀가 서로 더 이상 성적, 경제적 이익을 주지 못할 때에도 신의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사법적 정의의 차원에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부여한 성욕을 윤리적 관계의 매개로 활용하며 이뤄지는 것이다. 부부로서의 정의[의리]는 그 다음 단계에 저절로 찾아오게 마련이다. 이런 윤리적 선택의 지점을 놓친 이생은 초옥이 왜 기꺼이 자신의 육체를 허락하고 나아가 자기 가정과 목숨을 파괴하면서까지 자신과의 관계에 열중하는지 알아챌 수 없다.⁴⁰⁾ 그녀에게 남편과의 부부관계는 성적 관계에 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윤리적 선택일 수 없었고 당연히 서로 지켜야 할 도덕적 정의도 존재하지 않았다.⁴¹⁾ 반면에

39) “妾之有此行，非貪淫樂貨之類也，郎君亦非酒色放浪之徒也。有何嫌乎？願郎君惟心所欲，無使壅滯於胸臆也。有情而難吐，必然生病，病一生，則不如初不知也。”

40) ‘5.초옥의 수난’, ‘8.초옥의 자살 기도’, 김경미 외(2003), 166~172면, 181~189면.

41) 초옥에 대한 성적 흥미가 차츰 시들어 무료해진 이생을 몰래 자신의 집으로까지 끌어 들여 정사를 벌이던 초옥이 시아버지에게 발각하자 보이는 태도는 세속 윤리에 대한 그녀의 위배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보여준다.

‘어느 날 새벽 이생이 양파(초옥의 별명)를 찾아가니, 양파가 나와서 이생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마자, 갑자기 양노인이 밖에서 문을 잡아 당겼다. 양파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다.

“여기 이서방님이 와 계십니다.”

양노인이 이에 문을 열어 잠깐 보고는 도로 문을 닫고 나가며,

“나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

이생과의 관계는 그녀 스스로 선택한 윤리적 관계였으며 성적 관계는 그것에 부수되는 이차적 관계 이상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상의 이유 때문에 이생이 자신을 포의의 사권의 대상으로 대우하지 않았음을 깨닫는 순간 초옥은 결연히 이별을 결심하게 된다.⁴²⁾ 이 이별은 남편과의 이별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윤리적으로 대등해질 수 없다는, 다시 말해 동등한 인류이기 어렵다는 진실을 드러내며, 여성은 사법적 정의로 구성된 문화세계 속에서는 더더욱 자기 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자명한 사실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초옥은 세속의 윤리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윤리를 주장하는 표독한 이단아로서 세상을 떠돌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초옥의 운명이 현재 진행형이라면 사랑의 윤리에 대한 탐색은 인류에게 여전히 완수되지 않은 사명이 되며 우리는 아직 충분히 정의롭지 않다는 점 역시 자명해진다.

5. 결론

현대 인문학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윤리의 개시란 알랭 바디우의 ‘사건’이나 칸트의 ‘선형적 판단’처럼 논리적 토대 없이 도래하는 진리의 계시를 닮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말하자면 인류는 아무 뚜렷한 이유 없이, 마치 빅뱅처럼, 어느 순간 윤리적이기를 선택했다. 그 배후에 장기적으로 예견되는 유전자적 이득이나, 빙하기라는 혹한의 환경을 통과하려는 자구

하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김경미 외(2003), 183면.

42) 자신에게 다른 남성을 소개하는 듯한 이생의 실언을 듣자마자 초옥은 곧바로 이별을 선택한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이생과의 관계가 실은 그녀의 위태로운 윤리적 결의에 의해서만 유지된 것이었음이 밝혀지는 대목이다. ‘9. 헤어짐’, 김경미 외(2003), 189~194면.

책으로서의 생존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등의 설명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충분치 않다.

윤리적 선택이란 유전자 명령체계에서 핵심부를 차지하는 생존욕구를 정지시키고 타인들의 이익을 먼저 배려하는 행동이며 자신에게 가장 큰 편익을 줄 수 있었을 욕망을 통제하려는 가혹한 자기 억제 활동이다. 그러한 윤리적 선택들 가운데 사회 조직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편린들을 조합해 법률이 만들어졌으며 이 토대 위에 사법적 정의의 체계가 수립되었다. 이 정의의 사법 질서가 인류의 윤리적 난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면 욕망은 삶에서 더 이상 문제시되지 않았을 것이며 소설 창작도 중지됐을 지도 모른다. 불행하게도 아직 인류는 윤리적 질문 앞으로 간단없이 소환되어야 할 과도적 시대를 통과 중이다.

윤리적 질문의 민낯은 인간의 얼굴을 한 짐승의 삶으로 구성된다. 인간은 성교함으로써 번식을 완성하지만 번식 목적 이외의 쾌락을 자신의 몸에 발생시키기 위해 타자의 몸에 침투[접합]하는 원시적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 방식이 현인류의 문화적 코드 속에서는 지나치게 격렬하며 야생적이기에 사랑이라는 윤리적 현상이 발생해야 했다. 따라서 사랑의 윤리란 ‘인간은 어느 지점부터 인간인가?’라는 질문 또는 요청에 대한 응답이 된다.

‘누가 인간인가?’라는 질문을 사랑의 지평에서 던진다는 것은 상대를 먹을거리로 잡아먹거나 노동력으로 착취하지 않으면서 나와 동등한 존재로 존중한다는 것, 즉 상대를 나와 다른 또 다른 행성으로 간주하여 끝없이 탐색하고 엿보며 그/그녀에 대하여 존재론적으로 긴장해야 함을 뜻한다. 나와 상대 내부의 짐승을 발견하고도 그것에 인간의 정체성을 부여하려는 이 숭고한 행위는 완전한 정의가 어느 미래엔가는 성취될 수 있으리란 희망의 작은 씨앗이다.

참고문헌

司馬遷, 『史記』.

『尙書』(『十三經注疏』一), 學古房.

『孝經』(『十三經注疏』八), 學古房.

南孝溫, 『六臣傳』.

『大漢華辭典』九, 大修館書店.

김경미 외(2003), 『19세기 서울의 사랑』, 여이연, 129~211면.

송화선 기자(2018), <아주 사적인 인터뷰-하지현 정신과 전문의가 본 영화 ‘어느 가족’>, 『신동아』 9월호, 422~433면.

알렌카 주판치치 저, 이성민 역(2004), 『윤리 속의 실재』, 『실재의 윤리-칸트와 라캉』, 도서출판b, 357~362면.

임마누엘 칸트 저, 강태정 역(1991), 『제2장 순수실천이성 대상의 개념에 대하여』, 『실천이성비판』, 일신서적, 97~98면.

장효현 외(2003), 『布衣交集』, 『校勘本 韓國漢文小說 愛情世態小說』,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689면.

_____ (2007), 『金現感虎』, 『校勘本 韓國漢文小說 傳奇小說』,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면.

주디스 버틀러 저, 조현순 역(2005), 『제1장』, 『안티고네의 주장』, 동문선, 18~52면.

許進雄(2013), 『제6절 문자의 창』, 『中國文字學講義』, 고려대학교출판부, 300면.

<Abstract>

The Ethics of Sexuality in Korean Novels in Chinese Letters & the Contradiction of the Conception "Justice"

Yoon, Chae-keun^{*}

This essay tries to analyse two Korean classic novels in the premise that there is ethical contradiction in the origin of the discourses about justice. The coincidence between the judicial justice made from society and the ethical judgement originated from subject, of course, would be one of the ultimate goals of humankind. But it is not possible yet, and because of the impossibility various ethical, literal discourses on the topic could have been produced till now. The representative literal appearance generated from this gap of the contradiction is the narrative of love & desire.

The narrative of love & desire had begun from the attempt to humanized the savage desire attributed to nature and to establish it as new ethics. *Kimhyunkamho*(『金現感虎』) was the representative work of that humanizing process. This ethical process was designed to violate the principle of justice symbolized as 'effort for another's benefit(利物)' and 'tiger girl's sacrifice' is the symbolic accident in the Korean traditional narratives. This sacrifice narrative formed from the viewpoint that regarded women as the residue of savageness in later days, at the stage of *Pouikyojip*(『布衣交集』), could develop into the love narrative contains the issue of female identity.

If the love could symbolize the beginning of human ethics, trying to modify it in the view of justice means the reconstructing the concept of humanity. Therefore the legislation of justice as the realization of humanity is not the case could be performed at the angle of judicial

* The Professor of Dankook Univ./E-mail : zoongsoo@hanmail.net

modification on 'the effort for another's benefit(利物). It have to be rejustified through the fundamental retrospection of our ethical attitude toward sexuality and love.

Key words : sexuality, love, ethics, justice, judicature, savageness, civilization, desire, subject, society

본 논문은 2019년 1월 28일 투고되어 2019년 3월 19일 심사 완료하여
2019년 3월 20일 게재를 확정하였음.